

사회

■ 수돗물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검출 시민 반응

“어디 안심하고 먹겠나” 불안 가중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 믿을 수 없다고 난리인데, 알루미늄 같은 안 좋은 물질도 기준을 넘는다고 하면 어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 용연정수장의 ‘수돗물 오염사고’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수돗물을 보급받는 아파트 단지 279곳에 알루미늄(AD)이 기준치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알루미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수돗물 수질 부적합 경보(2급)상황을 주민공지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박정훈(43·광주 동구 지산동) 씨는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주 터지면 무서워서 살겠느냐”며 격분했다.

지난 16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 등의 통보를 받고 아파트 단지 저수조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용연정수장 사고 이후 겨우 진정이 되었다가 싶었는데 이런 통보를 받고 보니 당혹스러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먹는 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할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후 수질 검사를 나와 상

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간단한 시약 검사만 해 안전하다고 통보해 놓고,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밀 수질 검사 후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체 정화

조를 가지고 있고 수질검사 후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으나 수질검사 통보 후 저수조물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채웠다.

역시 수돗물 수질부적합 경보 통지를 받은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먹는 물과 관련된 행정인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밀한 수질검사와 발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

육군 제31사단 및 국방부 유해발굴 관계자 등이 17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도식을 갖고 헌화·분향 후 경례하고 있다. 유해발굴단은 올해 화순 화확산, 장성 태정산 및 영랑 불갑산 일대에서 발굴작업을 벌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등급생 자살부른 학교폭력 가해자 소년부 송치

檢 “관대한 처벌 안돼” 항고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홍태)는 17일 지난해 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자살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소년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해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재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유사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징역 2~3년을 선고받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광주 한 중학교 A(14)군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목을 매 자살했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 동급생인 이모(14)군 등 3명이 A군에게 현금을 갈취하거나 상습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나, 평소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 측의 강력한 처벌 탄원 등도 감안해 이례적으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승합차-시내버스 추돌 10명 사상

광주 용봉동서

17일 오전 7시17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 용봉로~북구청 방면 도로에서 정차중인 시내버스에 승합차(운전자 유모씨·29)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이모(여·69)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운전자 유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버스승객 등 모두 9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

다. 경찰조사결과 승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과 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광주 한 아파트 청소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유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른 오전 시간대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69) 김장두



보성 주택 화재 1명 사상

17일 새벽 0시28분께 보성군 보성을 배모(47)씨 집에서 불이나 방안에 있던 배씨가 숨지고 56㎡ 규모의 1층 단독주택 절반 가량이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뇌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배씨는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합의금 쟁전 ‘가짜 아버지’ 결국 기소

○동명미인인 성폭력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5명의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쟁전 ‘가짜 아버지’(본보 3월9일자 6면)가 결국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 여고생과 딸의 이름이 같은 나모(48)씨는 가해자 부모들이 착각해 자신을 찾아오자 “진짜 찾아와 응서를 받아야지, 교감선생님도 집에 와서 (주변이) 알게 돼 참피하다”고 거짓말한 뒤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여고생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5명의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 여학생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과는 전혀 무관한 나씨가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기소.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4년 수능 어렵지 않을 것”

교육과정평가원, A·B형 수능 예비시험 실시

EBS 사이트 해킹당해 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EBS 메인 사이트(www.ebs.co.kr)가 해킹당해 회원 약 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BS는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인 사이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분석한 결과 중국발 IP로부터 악성코드가 침투, 전체 회원 약 2000만명 중 5분의 1 정도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관련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BS 메인사이트는 EBS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KT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필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앞두고 2014수능의 출제유형과 수준을 알려주는 예비시험이 17일 고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시험지역인 대전광역시와 충남에서는 84개 시험장에서 3만9121명이 실제 수능처럼 오전 8시40분부터 시험을 치렀고, 광주·전남지역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풀어보도록 했다.

2014수능은 국어·영어·수학 3과

목을 난도에 따라 A형과 B형 2가지로 구분해 수험생들이 선택해 응시하도록 하되, 어려운 유형인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게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예비시험은 새로운 수능 형태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므로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다”고 말했다.

또 “국어영역의 경우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등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했고, A형은 기존 수능보다 지문 길이를 짧게 하고 B형은 그동안의 수능과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밝

혔다.

수학은 시험시간과 전체 문항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A형과 B형의 공통문항수를 5개로 줄였고, 공통문항의 문항 번호를 A형과 B형에서 다르게 배치했다.

평가원은 “고2학생은 이번 시험이 EBS와 연계되지 않고 전범위에서 출제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충실히 공부하면 내년 수능 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ung Young-jin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It features an aerial view of the school campus with a police officer icon and a traffic light icon. Text includes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Designated driving license exam center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A cozy campus like a park), and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Written license! Not a choice, but a necessity). It lists facilities like '트레일러' (Trailer) and '대형' (Large), and shows images of a truck, a bus, a car, a small truck, and a motorcycle. The website www.yjcdrive.co.kr is provided.

Advertisement for 'Jung Young-jin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It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hand holding a license. Text includes 'www.yjcdrive.co.kr',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Written license! Not a choice, but a necessity), and '광주 최대의 규모' (Largest scale in Gwangju), '깨끗한 환경' (Clean environment), '친절한 강사진' (Friendly instructors). It lists services like '사백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Operation of 100-class, A-class, weekend class),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From July 2012, additional tax on tuition fees), '교재무료 배부' (Free distribution of textbooks), '셔틀버스 운행' (Shuttle bus operation), and '2종 소형 (오토바이)' (2-class small (motorcycle)). The school name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and location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Location: Next to Sungha-dong intersection, next to Central Children's Hospital) are also mentioned. Contact number 062-951-5100 is provided.